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케리 로지스틱스, 샤먼 및 우시 물류센터 착공으로 중국 사업 확장-----	2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진산항구(金山港區) 건설계획 정식 가동-----	3
□ 인도 IPG(Indian Ports Global)사, GTO를 목표로 신설-----	4
□ 브라질, 항만 처리능력 확장계획 -----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책임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케리 로지스틱스, 샤먼 및 우시 물류센터 착공으로 중국 사업 확장

- 홍콩 기반의 케리 로지스틱스(Kerry Logistics)가 샤먼(Xiamen) 및 우시(Wuxi)에 물류센터를 연이어 착공하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샤먼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함
 - 케리 로지스틱스는 샤먼 하이창(Haicang) 수출가공구에 총 면적 42,600m²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3사분기 개장이 목표라고 지난 6월 15일 밝힘
 - 샤먼 물류센터는 각종 전자제품, 음식 및 음료, 와인 및 온도 민감 품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사의 기존네트워크를 활용, 중국 본토 뿐 아니라 대만과의 교역 물량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케리 로지스틱스는 연이어 중국 장쑤성의 우시시에도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하였음
 -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왕장(Wangzhuang) 공업구에서도 2012년 4사분기 개장을 목표로 26,000m² 규모의 물류센터를 착공하였다고 6월 27일 밝힘
 - 우시 물류센터의 수용능력은 1만 톤으로, 케리 로지스틱스는 연간 6만 톤 처리를 기대하고 있음

<Kerry Logistics의 중국 물류센터 착공 위치>



자료 : CI-online, 2011.06.29. / www.kerrylogistics.com, 보도자료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상하이 국제항운센터 진산항구(金山港區) 건설계획 정식 수립

- 2011년 7월 1일 상하이시 진산구(金山區) 정부는 상하이 국제항운센터의 일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항저우만(杭州灣) 북안 진산항구 건설계획이 정식으로 수립하기로 발표
 -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건설계획을 작성하고 상급 기관에 비준을 요청하며, 2013년 항구 건설 항목의 설계와 논증 등 모든 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임
- 상하이시 서남쪽, 항저우만 북안에 위치한 진산구는 양호한 조건의 심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항 심수부두 개발에 적합하다고 국무원이 확정한 세 번째 신항 부지이기도 함
 - 진산항구는 양쯔강 주변 16개 중요 도시와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내에 있으며, 항저우만 연육교와는 30km 떨어져 있음
- 진산항구는 해운, 내수로, 철도 등 다양한 운송방식을 통합한 벌크잡화와 화공물류 중심의 종합항구로 건설되며, 컨테이너 중심의 양산 심수항과 더불어 상하이 국제항운센터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 진산항구의 계획범위는 1차적으로 차오징 전기공장(漕涇電廠) 서측으로부터 약 6km 길이의 해안선 및 그 북측 육상 구역과 남측 해역으로 확정됨
 - 이를 따라 2.4km에 걸쳐 항만 부두를 건설하고 16.7km²의 항만 배후부지와 내수로 및 해상 연결운송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

<상하이시 진산구 위치도>



자료: www.investjs.gov.cn / www.snet.com.cn, 2011.07.04.

김홍매 책임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인도 IPG(Indian Ports Global)사, GTO를 목표로 신설

- 인도정부는 IPG사를 설립하여 DP World사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신규 항만운영사 설립은 중국의 인근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비하고 인근국가와의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중국은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심해항만을 건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인도기업이 항만을 직접 개발할 경우 물류비 감소뿐만 아니라 화물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인도의 해외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IPG사는 인도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가 투자하는 공기업으로 다음달 8월에 설립될 예정임
 - 설립자본금은 인도 13개 국영항만 펀드 Rs250억¹⁾(약 5억6천 USD)으로 마련하고, 향후 사업확장에 필요한 Rs500억의 자금은 채권을 발행하여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이 자금은 동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및 기타 인도와 교역하는 항만의 매입을 위해 활용할 계획임
- 인도는 이전에 항만과 해운분야에 9년간 교통망을 2배로 확장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교통부에 따르면 인도 해외교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매년 9%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음
 - 또한 주요 13개 항만의 취급량은 2010년 5억6천만 톤에서 2019-2020년에 12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항만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전체항만의 처리능력을 현행 9억 6,300만 톤에서 2020년 32억 3천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임
- 또한 인도의 국영 해운회사인 SCI(Shipping Corporation of India)사도 지속적인 교역량 증가로 향후 10년간 100척의 선박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www.cargosystems.net, 2011.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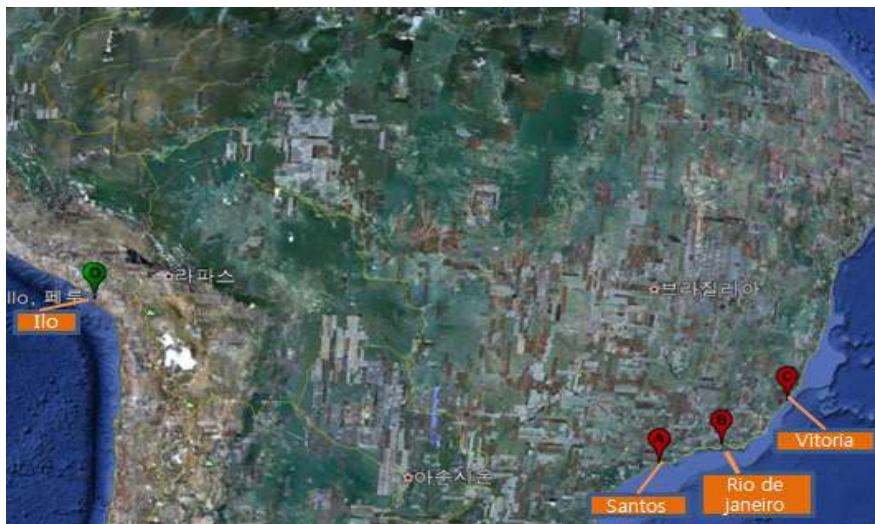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1) 인도의 화폐단위 루피의 복수형으로 2011년 6월말 기준 1USD=Rs44.72

□ 브라질, 항의 처리능력 확장계획

- 브라질정부와 기업체들은 2013년까지 항만부문에 1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철광석, 농산물, 석유의 교역량 증대로 항만수요가 증가하여 처리능력을 확장한다고 함
 - AP Moller-Maersk A/S, LLX logística사 등이 민영 항만에 준설, 크레인, 연결도로 및 철로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는 공공항만에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계획에 따르면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33% 증가시켜 8백만 TEU로 확장하겠다고 함
- 브라질은 2010년 물동량이 14% 증가하여 8억3,390만 톤을 처리했으며 이는 주로 철광석수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함
 - 수입은 가격기준으로 42% 증가하여 1,816억 달러를 기록 20년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으며 수출은 32% 증가한 2,019억 달러를 기록했음
 - 각 항만은 자금조달을 위해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를 찾고 있으며 조달 자금은 Santos, Rio de janeiro, Vitoria등의 항만에 액체화물저장시설 건설, 2015년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하여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임
- 또한 브라질의 Petróleo Brasileiro사와 Braskem사는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태평양으로 향하는 화물의 수출항으로 페루 남부해안 Ilo항 확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 ENAPU 항만청장은 브라질산 콩과 소고기를 Ilo항에서 수출하여 아시아시장의 수요를 충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 페루와 브라질 정부는 Ilo항 개발에 이미 합의를 하였으며 민간부분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밝힘

<브라질 Santos, Rio de janeiro, Vitoria 및 페루 Ilo항 위치>



자료: www.maritimoportuario.com, 2011.06.29.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